

## Bentall 술식의 조기성적

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

김창희·송 현·이은상·윤태진·이재원·서동만·송명근

대동맥 판류 및 대동맥 확장증은 상행대동맥의 병변으로 대동맥류가 형성되고 동맥류가 팽대되면서 대동맥 판류가 확장되는 질환으로, 대동맥판막의 병변이 없이도 대동맥판막 폐쇄 부전증이 올수 있다. 동맥류가 진행함에 따라 대동맥 내막이 파열되어 해리성 대동맥류 및 대동맥 파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술요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3년 10월부터 1996년 7월까지 판류 및 대동맥 확장증 환자 28명에서 Bentall씨 술식을 시행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. 환자의 연령은 23세에서 73세까지로 평균연령은 45세 였으며, 남자가 24명, 여자가 4명이었다. 수술전 상태는 상행대동맥 직경이 3.5cm에서 8cm까지 평균 5.9cm로 확장되어 있었고, 전 예에서 3도에서 4도까지의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이 있었으며, 심장과 흉곽의 비가 증가되어 있었다. 28명의 환자중 10명에서 상행대동맥 해리가 동반되어 있었으며, 4명에서 외견상 Marfan 증후군의 소견을 보였다. 수술은 우측 대퇴동맥 및 우심방이 혹은 대퇴정맥을 통해 Cannulation하고 체외순환을 시행하였으며, 상행대동맥 해리가 동반되었던 경우에는 esophageal temperature 12℃에서 total circulatory arrest 시키고, 상대정맥을 통해 retrograde cerebral perfusion을 시행하였으며, 17예에서 composite graft를 사용하였고, 11예에서는 non-composite graft로 수술하였다. 상행대동맥 해리가 동반된 10예에서는 Hemashield vascular graft를 사용하여 대동맥 치환술을 병행하였다. 관상동맥의 연결은 직접 coronary ostium과 graft를 연결하였는데, 2례에서는 button식으로 연결하였다. 술 후 조직검사상 대동맥의 병변으로는 medial degeneration 22예, atherosclerosis 4예, inflammation 2예였다. 수술로 인한 사망에는 없었는데, 술 후 합병증으로는 4예에서 출혈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하였고, 2예에서 심한 좌심실 부전을 보였다. 술 후 재원기간은 9일부터 79일까지 평균 18일이었고, 추적기간은 최단 1개월에서 최장 36개월로 평균 14개월이었다. 만기 사망은 1예에서 있었는데, 술 후 9개월째에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. 수술 후 NYHA의 기능분류는 술 후 좌심실 부전이 있었던 환자 2예에서 III의 상태에 있었고, 다른 환자들은 NYHA 기능분류 I 또는 II였다.